

‘-더-’의 의미에 관하여

이 홍 식

1. 문제 제기

본고의 목적은 선어말 어미 ‘-더-’의 의미를 분석하고 기술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선어말 어미 ‘-더-’의 의미 기능에 대한 논의가 많았던 만큼 ‘-더-’의 의미에 대한 주장도 여러 가지였다. 이 논의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더-’가 하나의 형태소로 분석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특히 ‘-더라’ 구성과 ‘-던’ 구성에서 드러나는 ‘-더-’의 의미 차이는 이들 구성의 ‘-더-’를 하나의 형태소로 묶을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한다. 반면 이들을 하나의 의미로 묶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논의들도 많다. 본고는 ‘-더-’의 의미 분석을 통해 이러한 상반된 주장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더-’가 나타나는 모든 구성의 의미 변이를 설명하는 하나의 의미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해서 각각의 ‘-더-’를 서로 다른 형태소로 분석해야 하는 것인지 하는 문제도 살펴보고자 한다.¹⁾ 본고는 서로 다른 구성에 나타나는 동일한 음성적 실체가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해서 이들이 반드시 다른 형태소로 분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런 입장에서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하는 점도 논의해 보

1) 임홍빈(1993:305)에서는 ‘-더-’의 의미를 구성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각 구성에 나타나는 ‘-더-’를 서로 다른 형태소로 분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고자 한다.

'-더-'는 선어말어미이며 분포는 그리 넓은 편이 아니다. 종결어미, 연결어미, 관형형 어미와 결합하기는 하지만 모든 어말어미에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1) -더라, -더냐, -데, -습디다, -습디까, -더니, -던, -던데²⁾

다른 선어말어미와 비교하면 '-더-'가 가장 후행하는 선어말어미라고 할 수 있다. '-더-'와 결합하는 시제와 관련된 선어말어미는 '-었-', '-겠-'이며 '-느-'와는 결합하지 않는다.

위의 구성에서 '-더-'를 분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더-'의 의미와 관련하여서도 이들 구성에 나타나는 '-더-'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고 하는 입장이 있다. 전자의 입장에 선 논의로는 최현배(1971), 양인석(1972), 장석진(1973), 손호민(1975), 김차균(1980), 이남순(1981), 임홍빈(1982, 1993), 한동완(1984), 왕문용(1986, 1994), 이창덕(1988), 김용경(1994) 등이 있고 후자의 입장에 선 논의로는 남기삼(1976), 서정수(1977, 1978, 1979), 이익섭·임홍빈(1983), 장경희(1985), 김창섭(1987), 최동주(1995) 등이 있다.

본고는 이들 구성에 나타나는 '-더-'를 하나의 의미기능으로 포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 구성에서 '-더-'를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물론 전통적인 형태소 분석 방법인 계열관계와 통합관계를 모두 적용했을 때 이들 구성에서 '-더-'가 명쾌하게 분석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라도 이들 구성에서 '-더-'를 분석해 낼 수는 있으므로 일단 '-더-'가 분석되는 것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³⁾

2) '-더라도, -던들, -더라면'과 같은 구성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들 구성에 나타나는 '-더-'를 분석하는 문제와 이를 다른 '-더-'와 동일하게 분석하는 문제는 유보하기로 한다. 김차균(1980), 서태룡(1988), 이창덕(1988), 최동주(1995) 등은 이들 다른 구성의 '-더-'와 동일한 것으로 처리한다.

3) 본고에서는 종결어미에 '-더-'가 결합한 구성과 접속어미에 '-더-'가 결합된 구성과

일반적으로 문법형태소의 기능을 분석하는 방식은 해당 형태소가 나타나는 구성과 나타나지 않는 구성을 비교하여 이들간의 의미차이를 해당 형태소의 의미로 분석해 내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구성에서 해당 형태소의 유무에 따른 의미차이가 동일하지는 않다. 이러한 차이는 분포상의 차이, 즉 ‘문맥 의미의’ 차이라고 말한다. 즉 동일한 의미가 환경에 따라 달리 인식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환경의 차이가 의미의 차이를 유발하는 것이 필연적인가 하는 점이다. 즉 어떤 의미와 어떤 의미가 결합되면 그 결과로 어떤 의미가 된다고 하는 해석이 해당 구성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이 문제되는 다른 구성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더-’가 주절에 나타났을 때와 관계절에 나타났을 때 의미 차이가 생긴다. 그리하여 이러한 차이를 두고 서로 다른 견해가 나타난다. 한 쪽은 이러한 차이는 동일한 의미가 문맥에 의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고 다른 쪽은 이들은 그런 식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한다. 전자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이다. 우선 관계절이기 때문에 ‘-더-’가 나타난 구성이 주절에 ‘-더-’가 나타난 구성과는 다르게 해석된다고 할 때, 관계절의 어떤 논리가 그렇게 만드는지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논리가 다른 어미들과의 결합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런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관계절의 의미론이 선어말어미의 의미론에 가하는 제약의 실체가 분명해 질 것이다. 그리고 관계절의 의미론을 통해 선어말어미의 의미론을 설명하는 것이 임의적이거나 인상비평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주절의 ‘-더-’와 관계절의 ‘-더-’를 단일한 형태소로 분석하는 논의가 얼마나 설득력을 갖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예를 들면 임흥빈(1993)에서는 ‘-더-’가 단면 인식을 나타낸다고 한다. 그리고 주절과 관계절의 구체적인 의미양상의 차이는 각 구성의 차이에 의한 것이 된다. 즉 두 구성에 나타나는 ‘-더-’의 본질적인 의미는 ‘단면 인식’이며 단지 ‘-더라’ 구성에서는 ‘인지전 비의식’이 부각되고 ‘-던’ 구성에서는 ‘인지후

관형형어미에 ‘-더-’가 결합한 구성을 각각 ‘-더라’, ‘-더니’, ‘-던’ 구성으로 표시하고 이들 구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비의식'이 부각된다고 한다. '-더-'의 의미가 구성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역시 주절과 관계절의 의미의 차이로 요약된다. 관계절은 전제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굳이 '인지전 비의식'을 부각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관계절과 같이 '인지전 비의식'이 부각되지 않는 상황에서 왜 굳이 '-더-'가 사용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만약에 의미상의 충돌이 문법요소의 공기를 제약한다면 '-더-'는 관계절에 나타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화자가 어떤 형태소를 능동적으로 사용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위의 설명은 화자의 역할이 작용하는 예가 될 수 있다. 반면 화자가 언어사용에 대해 하는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라면 위와 같은 '-더-'의 사용은 불가능하다고 기술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더-'의 설명에서 화자의 역할에 대한 기술을 도입하거나 주절과 관계절의 '-더-'가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2. '-더라' 구성

많은 논자들이 '-더-'의 의미기능을 분석하기 위한 일차적인 대상으로 삼는 것은 '-더라' 구성이다. 이 구성은 일찌기 문법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더-'가 나타나는 구성을 단순한 시간상의 표현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⁴⁾ 사건을 발화시보다 앞서는 것으로 제시하는 기능만으로는 '-더라' 구성의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하여 과거 표시의 기능 외에 어떤 기능을 가지는지를 탐색했다⁵⁾.

또한 '-더라' 구성을 중심으로 해서 '-더-'의 의미기능을 다룬 논의들이 많은데 이들 논의에서 제시한 '-더-'의 의미는 실제로는 '-더라' 구성 전체의 의미와 관련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손호민(1975), 서정수(1977)에서

4) 이익섭(1978), 이남순(1981, 1995)는 '-더-'를 상대시제와 관련시켜 논의하고 있다.
5) 임홍빈(1993:257-258)에는 임홍빈(1982) 이전의 '-더-' 논의를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더-’의 기능으로 제시한 ‘보고’는 진실이라는 ‘-더라’ 구성의 전형적인 기능에 대한 분석의 결과로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전형적인 보고의 장면에서 ‘-더라’가 사용되지 못한다는 것은 ‘더라’의 의미기능을 보고라고 분석하는 데에는 너무나 커다란 장애가 되는 듯하다. 서정수(1977)에서는 전형적이기 때문에 굳이 ‘더라’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이런 논리라면 전형적인 질문의 장면에서는 의문문이 사용될 수 없고 전형적인 명령의 상황에서는 명령문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더-’와 관련해서 가장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더-’가 과거를 지시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더-’가 과거 시제를 담당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더-’가 나타나는 문장은 과거의 상황을 지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에 관한 어떤 논의도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성립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본고는 ‘-더-’의 의미의 한 부분으로 ‘과거’를 인정하고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더-’가 과거를 나타낸다고 보면 ‘-더-’는 ‘-느-’와 대립된다고 할 수 있다.

(2) 가. 눈이 온다.

나. 눈이 오더라.

‘-느-’가 들어 있는 문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태를 기술하고 있으며 ‘-더-’가 들어 있는 문장은 과거에 진행되고 있던 사태를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더-’를 과거 진행을 나타내는 어미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⁶⁾

그러나 이것은 성급한 결론이다. ‘-더-’는 ‘-느-’와는 달리 형용사에도 연결될 수 있다.

(3) 영화는 참 예쁘더라.

6) 박승빈(1935), 정열모(1946), 손호민(1975), 서정수(1979) 등이 이러한 분석을 보인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더-'가 '-느-'에 대하여 과거와 현재의 대립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가 어떤 사건이나 동작에 대한 미완료나 진행을 나타낸다는 사실과 '-더-'가 완료나 미완료를 설정하기 힘든 형용사와 결합한다는 사실을 동시에 설명하기 위해서는 과거 진행이라는 기술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더-'를 단순히 과거 시제 표지로 분석하기도 어렵다. '-더-'와 '-었-'이 동일한 과거에 대해서 사용될 경우에 의미의 차이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 (4) 가. 눈이 왔다.
나. 눈이 오더라.

이들의 의미 차이는 이 두 문장의 비교만으로는 모두 드러나지는 않는다. '-었-'이 들어간 문장은 발화시의 관찰만으로 사용될 수 있다. 즉 발화시에 쌓인 눈을 보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더-'가 들어간 문장은 그러한 상황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 반드시 과거의 상황과 단절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이익섭·임홍빈(1983)에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더-'가 '직접 목격하거나 관찰하거나 경험한 사실들'이나 '몸소 살핀 것' 또는 '새로 알게 된 것'이나 '지각한 것'을 나타낸다고 하는 논의들도 있다.⁷⁾ 이러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문장을 설명할 수 있다.

- (5) 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더라.
나.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이 체험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더라' 구성이 사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더-'를 관찰이나 경험이나 지각과 관련시키는 것은 타당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7) 양인석(1972), 손호민(1975), 서정수(1977), 김차균(1980)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이들 논의는 경험하는 주체와 경험의 대상이나 내용 등에 대해 더 정밀하게 분석해야 하는 문제를 남겨 놓고 있다.⁸⁾

(6) 철수가 내일 가더라.

이 문장에서 화자가 관찰하거나 경험한 것은 무엇인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관찰하거나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 자세한 분석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흥빈(1982, 1993), 한동완(1984), 한현중(1990), 최동주(1994, 1995) 등은 ‘인식’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천착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들 논의에서는 화자가 언제 어떻게 사태를 인식하여 발화시에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한동완(1984)에서는 ‘-더-’를 ‘인식시의 선시성’을 표현하는 요소로 파악한다. 한현중(1990:63)에서는 ‘-더-’의 의미에 대해 “‘-더-’의 중심의미란 ‘화자가 전접상황을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경험했음을 발화시에 명시적으로 표상함’”이라고 한다. 최동주(1995:219)에서는 ‘-더-’가 “상황을 바라보는(제시하는) 화자의 視點이 그 상황을 인식한 時點(인식시)에 위치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논의는 화자의 경험이나 인식과 경험시와 인식시를 ‘-더-’의 의미와 관련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고 역시 이러한 흐름과 관련해서 ‘-더-’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더-’가 넓은 의미의 인식 양상과 관련된 문법요소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⁹⁾ 그러나 이들 논의에서 ‘-더-’의 의미로 제시한 것들은 ‘-더라’ 구성의 의미특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듯하다. 인식시의 선시성만으로 ‘-더-’와 ‘-었-’의 차이가 뚜렷이 부각되지는 않으며 ‘視點’이 인식시에 위치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료하지 않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고에서는 ‘-더-’가 과거에 어떤 사실을 의식의 대상으로 삼아 인식하고 그것을 발화시에 다시 인식하는 것을 표

8)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임흥빈(1982)에 지적되어 있다.

9) 임흥빈(1982:각주 1)에 따르면 인식 양상을 어떤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인식 태도를 문제 삼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현한다고 본다.¹⁰⁾ 이러한 ‘-더-’의 의미는 전통적으로 회상이라고 한 것과 유사하다(11). 그러나 ‘회상’은 좀 더 넓은 의미 영역을 갖는다. 화자가 기억하는 한, 경험한 모든 일이 회상의 대상이 된다. 즉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일이 가능하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일을 회상하는 것 역시 자연스럽다. 그러나 ‘-더-’는 과거에 의식의 대상으로 삼아 인식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더-’의 의미는 회상의 한 영역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더-’를 회상으로 보게 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최현배(1971)이나 고영근(1981) 등에서는 ‘-더-’를 회상과 관련시킨다. 그런데 ‘-었-’ 역시 과거를 표시하는데 ‘-었-’은 왜 회상과 관련시키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자.

(7)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했다.

이 문장은 과거의 사태를 지시한다. 그러나 이것은 화자의 회상이라고 할 수 없다. 회상은 개인의 과거 체험과 관련된다. 역사적인 사실이 비록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 해도 그것이 개인의 체험과 무관하다면 회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회상은 개인적인 과거사에만 허용된다. 특히 구체적인 경험과 그 기억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일을 회상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과거의 사태를 표현한다고 해서 모두 회상과 관련되지 않는다. 따라서 ‘-었-’을 회상과 관련시키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문제는 왜 ‘-더-’를 회상과 관련시켰는가 하는 것이다. 위에서 회상은 개인적인 과거의 체험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더-’도 이러한 의미를 갖는다.

10) ‘-더-’의 의미를 ‘재인식’이라고 분석한 점에서 왕문용(1983, 1994)는 본고의 입장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재인식의 의미가 관계절에서도 파악된다고 한 점에서 본고와 입장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11) 임흥빈(1993:257)에 따르면 ‘-더-’가 회상 시제나 서법을 나타낸다고 하는 논의들에는 최현배(1937, 1959), 김윤경(1948), 양인석(1972), 장석진(1973), 손호민(1975), 김차균(1980), 김영희(1981), 유동석(1981), 고영근(1981) 등이 있다.

(8) 가. 군대에 있을 때 눈이 많이도 오더라.

나.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하더라.

개인적인 체험과 관련해서 '-더-'가 사용된 예문의 성립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사실은 '-더-'를 회상과 관련하게 한다. 특히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체험과 '-더-'가 관련되므로 많은 논의에서 '-더-'를 회상과 관련시킨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더-'가 과거의 인식시의 인식행위를 부각한다는 점에서 회상이라는 행위와 관련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더라' 자체가 회상을 표현하지는 않는다. 화자가 자신의 일을 회상한다고 해서 그것을 '-더라'를 사용하여 표현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더라' 구성의 '-더-'가 화자의 인식이나 청자의 인식과 관련된다고 하는 것은 이 구성에 등장하는 제약의 성격에서 어느 정도 추론해 낼 수 있다. 이른바 양인석(1972:234-6)에서 '비동일 주어 제약'이라고 부른 제약 현상이 '-더라' 구성에 존재한다.

(9) 가. *내가 밥을 먹더라.

나. *내가 집에 가더라.

다. *내가 집에 가더냐?

라. *내가 밥을 먹더냐?

물론 이러한 제약은 충분한 상황만 주어지면 해소된다. 화자나 청자가 제약의 한 조건이 된다면 이것은 화자나 청자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사태와 시간상의 관련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화자나 청자가 사태에 대하여 갖는 관계가 '-더-'의 의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가 변질되면 이러한 제약은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임흥빈(1993)이나 최동주(1995) 등은 이러한 제약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며 '-더-'의 의미기능상의 특징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임흥빈(1982, 1993)는 화자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의식의 단절이 주어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동주(1994, 1995)는 화자 자신의 일은 이미 의식 속에

있어서 화자가 자신의 일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그 자체로는 절대적인 타당성을 갖기는 어려운 듯하다.

다음의 문장은 이러한 제약이 어느 정도 문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 (10) 가. 철수는 나를 때리더라.
 나. *내가 철수한테 맞더라.
 다. *철수가 나한테 맞더라.

이 사건이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모호한 진술이다. 분명한 것은 이 사태에 화자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화자나 청자가 아닌 제삼자가 주어인 경우에는 비록 화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성립하지만 화자가 주어인 경우에는 부자연스럽다. 이런 점에 대해 화자 자신의 일이라거나 하는 진술은 현상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듯하다. 또한 마지막 문장을 보면 비록 제3자가 주어이지만 부자연스럽다. 이는 단순히 문법적인 주어만으로는 제약을 적절히 기술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미론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주어라는 위치 외에 그것이 행위의 주체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 행위의 주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본고는 '맞다'의 동작주와 피동작주의 관계는 피동문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접속문의 후행절에 '-더-'가 사용되는 문장을 살펴보기로 하자.

- (11) 가. *나도 집에 가고 철수도 집에 가더라.
 나. *철수도 집에 가고 나도 집에 가더라.
 다. *나는 집에 가고 철수는 학교에 가더라.
 라. *철수는 학교에 가고 나는 집에 가더라.

위의 예문을 보면 '-더-'의 의미는 선행절에도 영향을 미치는 듯하다.

즉 화자가 후행절의 주어일 경우뿐만 아니라 선행절의 주어일 경우에도 ‘-더-’가 나타나기 어렵다.

또한 ‘-더-’는 복수의 주어에 화자가 포함되는 경우에도 나타나기 어렵다.

- (12) 가. *철수와 내가 집에 가더라.
나. *우리는 집에 가더라.

이처럼 복수의 주어가 나타날 경우에도 인칭 제약이 성립한다. 즉 화자가 주어이거나 화자가 주어의 일부인 경우에는 ‘-더-’가 나타나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화자가 사태를 어떻게 인식하기에 이러한 제약이 나타나는가? 본고는 ‘-더라’ 구성의 의미기능에 대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의 사태 인식은 지각과는 다른 것이다. 이는 명백히 의식에 떠올라 있어야 한다.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화자가 명제의 형태로 인식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화자가 어떤 동작을 하면서 자신의 동작을 의식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화자가 특별한 상황이 주어지면 화자는 자신의 동작을 의식의 대상으로 삼아 인식한다.

위 문장에서 제3자가 주어인 경우에 성립이 어려운 것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화자가 철수를 때리는 상황에서 화자는 철수가 자기한테 맞고 있다는 인식을 갖기 어렵다. 화자가 자기의 동작 중에 일어나는 일을 의식의 대상으로 삼아 인식한다고 하는 일은 생리적으로 어려운 일일 것이다. 따라서 화자의 동작에 영향을 받는 제3자가 주어로 나타나는 피동문이나 피동문과 유사한 문장에 ‘-더-’가 나타나기 어려운 것은 ‘-더-’의 의미에 말미암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화자를 포함한 복수의 주어에 ‘-더라’ 구성에 나타나는 경우에도 화자를 인식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기 때문에 문장의 성립이 제약된다고 할 수 있다.

화자의 동작이라 하더라도 화자가 자신의 행동을 의식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더-’가 쓰이는 것이 가능하다.

(13) 나만 혼자 담배를 피우더라.

아무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을 의식에 떠올려 대상으로 삼아 인식한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더-'가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는 화자의 인식과 화자의 동작이 동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의 이러한 의미를 '-었-'의 의미와 비교해 보기로 하자.

(14) 가. *글쎸, 도둑이 입은 옷은 검은 색이더라.

나. 글쎸, 도둑이 입은 옷은 검은 색이었어.

'-었-'의 경우는 그 당시에 감각기관으로 지각한 사실에 대해 지금 다시 그 사실을 의식에 떠올려서 판단한다. '-더-'는 과거의 한 시점에 도둑이 입은 옷을 보고 그 옷이 검은색이라는 판단을 하고 다시 현재에 그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즉 사태가 명백히 의식에 떠올라 인식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발화시에 다시 인식될 때 '-더-'를 사용하는 것이다. 장경희(1985)는 '-더-'의 의미를 과거지각이라고 했는데 이는 인식을 위한 전제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지각은 '-었-'의 경우에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었-'에 더 적합한 듯하다. '-더-'는 과거지각을 현재에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인식하고 그것을 다시 현재 인식하는 것이다.

(15) 가. 눈이 오더라.

나. 눈이 왔다.

(15가) 문장은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과거의 인식을 바탕으로만 사용된다. 그러나 (15나) 문장은 현재의 인식을 바탕으로 과거의 사실에 사용된다. '-었-'의 이러한 용법에 대해 '-었-'이 과거의 사태를 지시함으로써 현재를 기술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이 문장이 현재 시제인지 과거 시제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영어의 경우에는 현재 시제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영어의 현재완료로 사용될 상황이 국어에서는 ‘-었-’이 결합된 구성으로 사용된다.

(16) 가. 봄이 왔다.

나. Spring has come.

이를 두고 ‘-었-’이 과거와 현재완료의 두 가지 기능을 가졌다고 할 수 있고 국어의 과거시제는 결과로서의 현재까지도 기술할 수도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¹²⁾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더 다루지는 않겠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상태를 과거의 ‘-었-’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때 필요한 지각은 발화시 현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발화시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다. 이것은 생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도의 시차를 무시한다면 발화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더라’ 구성은 과거의 인식을 문제삼는 것이다. 임홍빈(1993)은 ‘-더-’가 ‘-었-’과는 달리 단면 인식을 나타낸다고 한다. 이는 ‘-더라’ 구성이 ‘진행’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특정 시점에 지각한 사실을 의식에 떠올려 인식하는 것이 단면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완료되지 않은 동작의 표현은 인식의 시점이 그것을 문제삼지 않는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문제삼는 시점에 인식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완료의 의미를 갖는 ‘-었-’의 개입을 불러온다.

(17) 가. 눈이 오더라.

나. 눈이 왔더라.

이것은 인식의 시점의 문제일 뿐이다. 사건의 완료이후의 시점에서 인식한다면 그것은 (17나) 문장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17가) 문장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여기에 단면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할 여지는 없는 듯하다. (17가) 문장이 ‘진행’처럼 보이는 것은 상황이 진행되는 순간

12) 이성영(1994)은 ‘-었-’의 의미론적 층위의 의미기능은 과거시제이며 화용론적 층위에서의 의미기능은 완료라고 한다.

의 인식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인식이 '-더-'와 관련된다고 해서 '었-'이 나타나는 문장에 이러한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더-'가 적극적으로 그러한 기능을 갖는다고 해서 그러한 경우에 '-더-'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더-'가 그러한 상황을 문제삼는 데 비해 '-었-'은 그러한 상황을 문제삼지 않으며 따라서 과거의 특정한 시점에 인식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태도 단지 그것이 과거에 일어났다는 것만 표현해 줄 뿐이다. 이는 '-었-'의 기능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마치 '-었-'과 '-더-'가 대립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들은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즉 기능은 양가의 대립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며 문제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왜 '-더-'가 사용되는 상황에 대해서 '-었-'이 사용되느냐 하는 식의 반박은 적절하지 않다. 그것은 '-었-'의 기능에 적합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더-' 역시 '-더-'의 기능과 부합하는 상황에 사용되는 것일 뿐이다.

달리 지적할 것은 '-더-'의 개입이 청자 대우법상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다.

- (18) 가. 철수는 밥을 먹었습니다.
 나. 철수는 밥을 먹었습니다.
 다. 철수는 밥을 먹었습니까?
 라. 철수는 밥을 먹었습니까?

필자의 직관으로는 '-습디다, -습디까' 형은 '-습니다, -습니까' 구성과는 달리 화자가 어느 정도의 연령에 도달해야 하고 청자와 비슷한 정도의 사회적 위치를 가져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것이 설명을 필요로 하는 현상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방언에 따라서는 이러한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표준어에서는 또는 현재의 서울지방의 젊은이들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듯하다. 만약 '-더-'가 나타나는 구성의 이러한 현상을 '-더-'의 기능과 관련해서 설명하려 한다면 그 과정은 매우 험난할 것이다. 인식의 어떤 측면이 상대경어법상의 차이를 유발하는 것인가? 과거의 사태를 화자가 어떤 식으로 인식하면 그러한 사실이

청자를 대우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될 것인가?¹³⁾ 이러한 것은 우연한 것으로 취급해야 할 듯하다. 이는 ‘-더-’가 동등한 가치로 모든 구성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즉 ‘-더-’가 들어간 모든 구성이 언중에게 동등하게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사용상의 빈도와 같은 것이 이러한 대우법상의 차이를 낳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3. ‘-더니’ 구성

접속절에 나타나는 ‘-더-’는 주절의 ‘-더-’와 그 기능이 비슷한 듯하다. 과거의 사태 인식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주절과는 조금 다른 현상도 발견할 수 있다.¹⁴⁾

- (19) 가. 내가 도착했더니 거기에는 아무도 없더라.
 나. 내가 도착하더니 춤을 추더라.
 다. 철수가 급히 들어오더니 전화를 찾더라.
 라. 철수가 도착했더니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완전한 대칭은 아니지만 ‘-있더니’와 ‘-더니’는 상반된 주어 분포를 보여준다. 화자가 주어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주절의 경우처럼 ‘-더니’의 사용이 제약된다. 그리고 그러한 제약의 해소를 위한 상황의 조건도 주절의 경우와 동일하다. 화자가 자기 자신의 일을 대상화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 이에 비해 ‘-있더니’의 경우는 화자가 주어로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후행절의 주어는 물론 화자가 아닌 것이 자연스럽다. ‘-더라’에 나타난 ‘-더-’처럼 특별한 상황이 주어지면 후행절의 주어가 화자가 될

13) ‘-더라’ 구성이 신빙성이 없거나 무책임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가 상위 청자에게 진술하는 화자의 입장을 공손하지 않은 것으로 만든다고 할 수 있다.

14) 장경희(1985:87)에서는 ‘-더니’에 주어가 1인칭인 경우에 ‘경험’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

수 있다. 또한 선행절의 주어에 화자가 아닌 대상이 나타나면 어색하게 되는 문장들이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었더니'의 경우에는 '-더라'와 뭔가 다른 기능을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었더니'의 '-더-'는 '-더라'의 '-더-'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것은 여전히 화자의 과거 인식을 문제삼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었더니'는 주어의 종류에 따라 다른 문법성이나 용인성을 보여 주는 듯하다. 이는 '-더라'가 사용되었을 때와는 다르다.

(20) 가. 내가 도착했더라.

나. 철수가 도착했더라.

이 경우에 화자가 주어가 되는 경우에는 성립이 어렵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읽이란 조건을 충족하면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듯하다. 그러나 화자가 자신의 일을 잘 모른다는 것은 실제의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니므로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문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그런데 왜 접속절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것일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으니'의 의미특성이 이런 상황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21) 가. 내가 때렸더니 막 울더라.

나. 내가 때렸으니 막 울더라.

다. 내가 때렸으니 막 울지.

이 문장들을 비교해 보면 (21가) 문장에서는 화자가 선행사태가 후행사태의 원인이 되는 것을 이전에 알고 있거나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나) 문장은 성립이 잘 안되는 듯한데 이는 선행사태와 후행사태가 인과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후행절에 '-더-'가 들어 있어서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즉 '-으니'가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를 이미 당연한 것으로 파악하는데 후행절은 그러한 것을 그때 처음 인식한 것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는 것이다. (21다) 문장이 자

연스러운 것은 후행절이 그러한 화자의 인식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우리가 ‘-으니’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으니’가 단순히 인과관계를 표현한다면 우리의 논의는 조금 더 쉬울 듯하다. 그러나 화자가 당연한 것으로 파악하는 인과관계로 이 어미의 의미를 규정한다면 ‘-었더니’의 의미는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본고는 이 문제를 더 다루지는 않겠다. 일단 인과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기로 한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으니’와 결합한 ‘-더-’는 주절의 ‘-더-’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21가) 문장에서 화자는 과거의 특정 시점에 선행절의 사태를 인식한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것이 1인칭일 때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화자의 인식 대상이다. 화자가 나를 인식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듯하다. 화자의 시선은 화자가 아닌 맞은 대상으로 향해 있다. 다음 문장과 비교해 보면 잘 드러난다.

(22) 가. *철수가 나를 때렸더니 내가 울었다.

나. 내가 철수를 때렸더니 철수가 울었다.

다. 내가 벽을 쳤더니 내 손이 아프더라.

(22가) 문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그런데 (22나) 문장은 성립이 자연스럽다. 이는 화자의 시점이 주어와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주어에 대해 화자의 시점이 향하고 있지 않고 주절의 주어에 화자의 시점이 놓이게 된다. 이는 ‘-더-’가 단순히 선행절을 영역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화자는 선후행관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이러한 관심은 선행절의 ‘-더-’가 선행절을 대상으로 삼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절의 결과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즉 인과관계는 화자가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인과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선행 사태에 대한 인지시점을 부각시키게 된다. 만약 인과 관계를 화자가 미리 알고 있다면 ‘-더-’ 사용은 어려울 것이다.

- (23) 가. 문을 두드렸으니 주인이 나왔다.
 나. 문을 두드렸으니 주인이 나올 거야.
 다. 문을 두드렸더니 주인이 나왔다.
 라. 문을 두드렸더니 주인이 나올 거야.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었더니'의 후행절은 추측의 내용이 담긴 절이 올 수 없다. 이는 화자가 선행행의 인과관계를 미리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두 개의 사태가 발생하고 그 사태의 인과관계는 화자에게 새로운 인지대상으로 떠오른다. 주의할 점은 인과관계가 그렇다고 해서 인지대상이 두 사태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오히려 두 사태 사이의 관계이다. 따라서 '-더-'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어말어미가 붙은 선행절에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국어에서 두 절의 인과관계는 두 절 사이에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관계를 표현하는 선행절에 의존해서 나타나게 된다. 즉 구조적으로 선행절은 부사적으로 분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특성과 관련해서 '-더-'가 나타날 때 선행절에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선행절은 완전히 독립된 사태가 아니라 후행절과 의미상 관련을 맺은 것으로 화자의 인지대상이 되는 것이다.

4. '-던' 구성

'-더라' 구성의 '-더-'와 '-던' 구성의 '-더-'의 의미를 동일한 것으로 분석하는 논의와 각각의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고 보는 논의들이 있어 왔다. 임홍빈(1982, 1993), 이남순(1981, 1995), 왕문용(1986, 1994), 한동환(1984), 한현종(1990) 등은 '-더라' 구성의 '-더-'의 의미와 '-던-' 구성의 '-더-'의 의미가 동일하며 이들이 보여주는 의미의 차이는 각 구성의 의미특성에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남기심(1976), 최동주(1995) 등은 '-더라' 구성의 '-더-'와 '-던' 구성의 '-더-'의 의미가 각 구성의 의

미특성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이질적이라고 한다. 장경희(1985:87)도 ‘-던’의 ‘-더-’는 ‘-더라’의 ‘-더-’와 달리 ‘경험’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한다.

‘-던’ 구성은 다음 예문에서 나타나듯이 관계절이나 보문에 두루 사용된다.

(24) 가. 줄곧 일등을 하던 철수는 지금 무엇을 할까?

나. 나는 어려서 매달던 일을 기억한다.

‘-더-’는 ‘-던’ 구성에만 나타난다. ‘-을’과 결합해서 사용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었-’은 ‘-을’과 결합하여 과거의 사태에 대한 추측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더-’가 ‘-을’의 의미와 충돌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즉 과거의 사태를 사실로 인식하는 화자의 태도가 ‘-더-’의 의미에 들어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더-’는 동작이나 사건의 진행과 관련된다. 또는 다른 각도에서 표현하면 동작이나 사건의 미완료와 관련된다.

(25) 가. 철수가 학교에 가더라.

나. 철수가 쓰던 연필

그러나 위에서 지적했듯이 그것이 주절에 나타나는 ‘-더-’의 경우에는 이것이 그 자체의 기능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었-’이 선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미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26) 철수가 학교에 갔더라.

그런데 관형절의 경우에는 이러한 미완료의 의미가 두드러지는 듯하다. 이를 박승빈(1935), 정인승(1956), 이희승(1957), 남기심(1976), 최동주(1995) 등은 중단, 미완, 단절 등의 의미로 기술하고 있다. ‘-었-’이 선행한다 하더라도 주절에서처럼 이러한 의미특성이 희미해지지는 않는다.

(27) 철수가 썼던 연필

이 경우에 완료나 완결이라는 의미를 느끼기는 어려운 듯하다. 그러나 다음 문장을 비교해 보면 완료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다.

(28) 철수가 먹었던 밥을 토했다.

'-었-'에 의해 완료의 의미가 덧붙여진다면 '-더-'가 미완료를 나타낸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완료와 미완료가 결합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범상한 논리가 아니다. 이는 계열관계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었-'과 결합한 경우에는 미완료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정당하다면 그렇지 않은 관형절의 '-더-'도 미완료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형용사에 결합한 '-더-'가 미완료를 나타내지 않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물론 미완료라고 하는 것이 동작이나 사건이나 과정에 나타나는 것이라면 상태나 속성에는 나타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보다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설명을 택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한다. 만약에 형용사와 결합한 '-더-'가 단순히 과거만 나타낸다면 그것은 다의적인 설명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방식을 피하고 두 구성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인식론적인 범주를 사용하는 것이다. 즉 동작이나 사건이나 과정, 상태나 속성과 양립할 수 있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다. 임흥빈(1993)은 단면인식으로 '-더-'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단면인식이 다음과 같은 상태나 속성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기술하고 있지는 않다.

(29) 가. 영화가 예쁘더라.

나. 예쁘던 영화의 얼굴

임흥빈(1993)은 주로 사건을 기부-해부-결부로 분석하고 이러한 사건의 연속을 어떻게 화자가 인식하여 표현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상태나 속성은 이렇게 분석할 수는 없다. 상태나 속성은 이러한 굴절

이 없이 시간적으로 연속하는 것처럼 인식된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의 한 단면을 인식하여 표현하는 것이 ‘-더-’라고 이해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더-’는 상태나 속성의 경우에도 단면 인식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단면인식의 논리만으로 주절과 관계절에 나타나는 ‘-더-’를 일관성 있게 기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절에 나타나는 제약이 관계절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직접적인 체험의 문제이다.

(30) 가. 철수가 밥을 먹더라.

나. 밥을 먹던 철수

다. 이순신이 왜군을 무찌르더라

라. 왜군을 무찌르던 이순신

주절에서는 화자가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체험한 사태에 대해 ‘-더-’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관계절에서는 화자가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체험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더-’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주절의 ‘-더-’가 인식양태와 더 많이 관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더-’를 분리하여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관계절의 논리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주절에서는 사건시와 인식시와 발화시가 두드러지는데 이 때 관련되는 서술어는 하나이므로 ‘-더-’의 인식시가 뚜렷이 부각될 수가 있다. 관계절이 문제삼는 사태는 주절의 사태와 이미 시간상으로 관련이 되고 시간상의 차이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인식시가 부각되지 않는 것이다. 즉 주절의 사건시와 발화시와 관계절의 사건시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충분할 가능성이 있다. 즉 주절의 ‘-더-’는 단순히 사건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인지한 시점도 문제삼게 되지만 관계절은 그러한 시간상의 단절이 주절과 관계절 사이에 이미 존재하므로 인식시까지 문제삼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인식시의 부각은 주절에서 진술의 요건상 필요한 것인데, 전제된 사태를 표현하는 관계절은 진술이 아니므로 진술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관계절과 주절이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미래와 관련된 경우이다. 주절은 미래의 사건에 대한 과거의 인식을 표현하기 위해 '-더-'가 나타나는 것을 용납한다. 그러나 관계절은 그렇지 않다.

(31) 가. 철수는 내일 미국에 가더라.

나. *내일 미국에 가던 철수는 오늘 병원에 입원했다.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관계절은 주절과 달리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과거의 인식을 표현할 수 없다. 이것은 관계절에 나타나는 '-더-' 자체의 의미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더-'와 결합한 '-은'의 의미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주절과 관계절의 차이는 이른바 비동일 주어 제약에서도 나타난다.

(32) 가. *내가 집에 가더라.

나. 집에 가던 나

다. *내가 집에 갔더라.

라. 집에 갔던 나

이들 구성의 차이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더-'에 대한 논의가 직면하게 되는 어려운 문제이다. 이들 차이는 '-더-'를 분리해서 기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본고에서는 다의적인 처리를 택하기 때문에 기본의미 하나를 가지고 이러한 차이를 기술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적절하게 기술하는 것은 필요하다. 주절이 인식시를 문제삼고 인식의 대상화를 택한다면 관계절은 인식시를 문제삼지 않으며 또한 인식의 대상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관계절의 '-더-'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단면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의 상황에 대해 단면인식을 표현하는 것이다. 주절과 다른 점은 단면인식의 인식시를 부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화자의 일을 대상으로 삼아 인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즉 나중에 아는 것에 대해서 문제삼지 않기 때문

이다.

이러한 기술이 절대적으로 성립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것은 경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제된 내용에 대해서도 인식시를 부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주절과 관계절에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가 공시적으로 기술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의적인 처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통시적으로 관계절과 주절의 '-더-'가 다른 길을 걸어오게 된 원인으로 위와 같은 설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공시적으로 관계절의 논리로 환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예측의 문제를 만족하지 못한다. 관계절의 논리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더-'가 관계절에서 나타내는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즉 관계절에서 나타나는 의미를 기본의미라고 하는 것으로 관계절의 의미나 논리를 통해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다의적인 처리를 하고자 한다. 분포에 따른 차이는 하나의 형태소를 정립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공통성만 제시하는 것이 '-더-'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단면인식이라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해서 이것이 '-더-'의 모든 분포상의 차이를 포괄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러한 차이를 분포상의 차이로 인정하고 '-더-'를 분포에 따른 의미를 갖는 다의형태소로 규정하고자 한다.

5. 결 론

본고는 선어말어미 '-더-'의 의미기능을 분석해 보았다. 선어말어미 '-더-'는 온전히 시제 요소로서의 기능을 갖지 않는다고 많은 논의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이는 '-더-'가 시간과 무관한 요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제라는 기준에서 보면 아마도 '-더-'는 과거 시제 형태소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과거 시제가 확립되고 그러한 기능에 부합하는 요소를 찾을 경우에 한한 것이다. 이러한 기능이 '-더-'의 기능을 모두 포

괄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문제를 화자의 인식과 관련해서 다루어 보고자 한 것이다.

'-더-'는 주절과 접속절, 그리고 관형절에 나타나는데 모든 환경에서 동일한 의미기능을 보이지는 않는다. '-더-'는 분포에 따라 표면적인 의미기능을 달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많은 논의에서 이러한 차이를 구성의 논리와 '-더-'의 의미의 결합으로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그러한 시도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 요소가 분포에 따라 의미의 변화를 입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개개의 현상으로 기술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현상과 관련해서 기술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것은 그러한 설명이 일회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이 안 되도록 도와 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특히 관계절과 주절의 '-더-'의 의미기능의 차이는 분포상의 변이로 환원되기에는 지나치게 이질적인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본고는 다의적인 처리를 하였다.¹⁵⁾

이런 다의적인 처리에는 단위의 문제가 제기된다. '-더-'를 다의 형태소로 분석하는 작업이 있을 수 있으며 다의 선어말어미로 분석하는 작업이 있을 수 있다. 형태소로 분석하는 것은 어느 정도 통시적인 과정을 고려해도 될 것이다. 그러나 공시적으로 통사론의 단위로 분석하고 그 의미를 기술할 경우에는 '-더-'가 과연 통사론의 단위인지, 또한 그렇다면 어떤 성격을 지니는 단위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한 한계를 지낸다.¹⁶⁾

달리 더 지적할 것은 '-더-'의 의미 분석방법에 관한 것이다. '-더-'를 다룬 많은 논의에서는 인식과 관련된 의미기능을 '-더-'에 부과하려고 한다. 그리고 아마도 이러한 시도가 '-더-'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유효하지 않은가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의 문제점은 인식과 관련된 용어나 설명이 더 넓은 이론적 지평 위에 놓이지 않는 것이다. 화자가 사태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지 않고 인상비평의 방식으로 직

15) 이러한 다의적인 처리는 '-더라도, -던들, 더라면' 등에 나타나는 '-더-' 역시 본고에서 다룬 '-더-'와 같은 형태소로 분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이는 후일로 미룬다.

16) 통사론의 단위와 분석과 관련된 문제를 다룬 논의로 임동훈(1995)가 있다.

관적으로 파악되는 '-더-'의 의미기능에 대해 일상언어를 단순히 제시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다 기보다는 논리의 전개 과정이 비제약적이 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더-'의 의미기능은 주위에 결합하는 다른 문법요소의 의미기능에 의해 굴절된다고 하는데 그러한 굴절이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를 검증하는 절차를 생각하기 어렵다. 이것은 다른 현상에도 적용되지 않고 '-더-'의 분석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성을 획득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하나의 선어말어미의 의미기능 분석에 사용된 논증절차는 다른 선어말어미나 문법형태소의 의미기능 분석에 대해서도 사용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논의의 대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더-'가 나타나는 구성을 통해 '-더-'의 의미를 분석해 왔다. 그러나 '-더-'가 나타나지 않는 구성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들 구성에 '-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그러한 구성의 의미 특성 때문인가 아니면 우연한 현상이냐 하는 점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런 연구 성과에 기대어 '-더-'의 의미를 분석하는 작업은 더욱 정밀한 '-더-'의 이해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고영근(1981), *중세 국어 시상과 서법*, 탑출판사.
- 김영희(1981), "회상문의 인칭 제약과 책임성," *국어학* 10, 국어학회(김영희(1988)에 재수록).
- _____(1988), *한국어 통사론의 모색*, 탑출판사.
- 김용경(1994), *국어의 때때김법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 _____(1948), *고급용 나라 말본*, 동명사.
- 김차균(1980), "국어 시제 형태소의 의미," *한글* 169, 한글학회(김차균

- (1990)에 재수록).
- _____ (1991), *우리말 시제와 상의 연구*, 태학사.
- 남기심(1976), “관계 관형질의 법과 상,” *한국어문논총*(남기심(1978)에 재수록).
- _____ (1978), *국어 문법의 시제 문제에 관한 연구*, 탑출판사.
- 박승빈(1935), *조선어학*, 조선어학연구회.
- 서정수(1977), “‘더’는 회상의 기능을 가지는가,” *언어* 2:1, *한국언어학회* (서정수(1990)에 재수록).
- _____ (1978), “‘-(었)더니’에 관하여,” *논외 허웅박사 화갑기념논문집*(서정수(1990)에 재수록).
- _____ (1979), “‘-(었)던’에 관하여,” *여천 서병국박사 화갑기념논문집*, 형설출판사(서정수(1990)에 재수록).
- _____ (1990), *국어 문법의 연구 I*, 한국문화사.
- 서태룡(1988), *國語 活用語尾의 形態와 意味*, 탑출판사.
- 손호민(1975), “Retrospection on Korean,” *어학연구* 11:1.
- 양인석(1972), *Korean Syntax: Case Markers, Delimiters, Complementation, and Relativization*, 백함출판사.
- 왕문용(1986), “{-더-}와 관형질,” *국어학신연구*, 탑출판사.
- _____ (1994), “국어의 시제 연구 방향,” *남천 박갑수 선생 화갑기념논문집*, 태학사.
- 유동석(1981), “{-더-}의 의미에 관한 관견,” *관악어문연구* 6,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 이남순(1981), *현대 국어의 시제와 상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46, 국어연구회.
- _____ (1995), “국어의 syntagm과 paradigm을 위하여,” *국어학* 25, 국어학회.
- 이성영(1994), “‘-었-’의 의미와 화용,” *남천 박갑수 선생 화갑기념논문집*, 태학사.
- 이익섭(1978), “상대 시제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3,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 이익섭·임홍빈(1983), *국어 문법론*, 학연사.
- 이창덕(1988), “‘-더-’에 관한 문제,” *말* 13, 연세대 한국어학당.

- 이희승(1957), *새고등문법, 일조각.*
- 임동훈(1995), “통사론과 통사 단위,” *어학연구* 31: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임홍빈(1982), “선어말 {-더-}와 단절의 양상,” *관악어문연구* 7,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 ____ (1993), “다시 {-더-}를 찾아서,” *국어학* 23, 국어학회.
- 장경희(1985), *현대 국어의 양태 범주 연구, 탑출판사.*
- 장석진(1973), “話의 生成的 研究: 한·영어의 活用상을 중심으로,” *어학연구* 9:2 별권, 서울대 어학연구소.
- 정열모(1946), *신편 고등 국어 문법, 한글문화사.*
- 정인승(1983), *표준 고등 말본, 신구문화사.*
- 최동주(1994), “현대국어 선어말 {-더-}의 의미에 대하여-마침법의 경우-,” *어학연구* 30: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____ (1995), *國語 時相體系의 通時的 變化에 관한 研究, 서울대박사학위 논문.*
- 최현배(1971), *우리 말본, 정음문화사.*
- 한동완(1984), *현대국어 시제의 체계적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 ____ (1991), *국어의 시제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 한현중(1990), “현대 국어의 시제 체계의 수립과 그 제약 조건,” *국어연구* 99, 국어연구회.